



“세상을 이끄는 1% 특별한 서강”

서강대학교는 개교 이래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엄격한 학사관리와 교육의 수월성 제고, 학생 중심의 교육 및 행정 서비스에 노력해온 대학이다. 이러한 노력은 서강대학교가 최근 3년간 연속 대기업 취업률 1위, 2009년 종합대학 중 정규직 취업률 1위, 2009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종합대학교 부문 1위, 2009 아시아 지역 대학평가에서 사립대학 최고의 졸업생 평판도 등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서강의 노력은 “봉사정신과 전문성을 갖추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그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학의 사회적 기능 및 가치가 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대학들이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와 지식을 창출하고 인류 사회 및 경제발전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추어야만 한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서강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서강” 프로젝트의 목표 중 하나는 입시 및 취

업 위주 교육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전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다면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목표는 획일적 잣대의 대학 평가 지표 향상에 주력하여 선진국에 비해 사회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과 산학협력 체제를 혁신하여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전인교육 및 다면적 인재 양성 교육

서강대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가톨릭 예수회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 원어민 영어교육과 최고의 국내외 교수진에 의한 국제화된 교육, 주제별로 최고의 전공 전임교수에 의한 교양과목 강의 등 서강 고유의 전인적 교육과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사회 발전과 체제 변화, 입시 정책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학생들의 의식과 생활태도의 빠른 변화, 산업 환경과 다양성의 급속



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특히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와 그 진폭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학문의 다양성은 확대되고 각 학문분야의 전문성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인재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다면화되고 있으며 또한 전인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강대학교의 전인교육은 인성, 창의성, 다양한 학문과 문화의 이해, 그리고 리더십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모든 교양과목은 주제별로 국제적 석학교수가 강의하며, 모든 학생에게 봉사활동 과목의 수강을 의무화하고, 학생 단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학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입학계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수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강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개선하였다.

전공교육은 전 과목을 전임교수가 담당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및 실습 위주 교육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교수의 연간 책임시수를 15학점에서 12학점으로 축소하였으며,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우수한 교수는 학기 당 한 과목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수진 규모를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학과 별로 1명 이상의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영어 강의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국제 교류와 문화 이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교육은 이를 뒷받침할 연구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강대학교는 전임교수들의 연구활동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교수연구비 지원예산을 6배로 증액하였다.

융합 학문 · 기술 연구의 초일류 특성화

서강대학교는 “특별한 서강” 프로젝트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교수 연구역량을 한국 최고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출하고 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강대학교는 자연스럽게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택한 구체적인 방법은 특성화 분야를 선택하고 이 분야의 연구역량과 성과, 사회 기여도를 초일류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강대학교는 이미 2008년 3월 서강미래기술원(SIAT: Sogang Institute of Advanced Technology)을 설립한 바 있다. SIAT은 융합기술(과학기술-문화-디자인)과 아트테크놀로지(문화콘텐츠-예술-과학기술) 분야의 교육, 연구, 사업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학 모델로 기획되었다.

SIAT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소 중심 융합 대학원 모델로서, 의리기술연구소(MSI), 환경·에너지연구소(SE2I), 융합소프트웨어 연구소(SCT), 반도체(STI) 및 지능형센서(ISSI)를 결합한 융합부품연구소, 기술경영연구소(MOT)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2월 중 아트테크놀로지연구소(ATT)가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 각 연구소는 소속 전임교수 및 연구원 외에 다양한 전공의 기존 학과 소속 교수들이 참여하여 목적 지향적 대형 융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SIAT에 입학한 대학원생은 각 연구소에 배속되어 관련 연구에 참여하면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SIAT은 또한 소속 융합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교내 기타 조직이나 개인 교수들의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기술사업화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술사업화단은 서강기술지주회사와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자회사(창업 벤처기업)들과 기술이전 및 자회사를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투자사로 구성되어 있다.

SIAT의 융합연구소들은 모두 2008년 이후 설립되었는데 2009년 현재 총 일천억 원을 상회하는 연구비 규모의 융합연구 과제 8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인공광합성 연구는 교육과학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PET 및 초음파 기반의 molecular and functional 의료영상시스템, 핵의학영상용 진단시약 및 제조기기, 자동차용 지능형 센서, 임베디드 보안기술 등 과제 역시 정부와 국내외 기업의 연구비 지원을 바탕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각각이 세계적으로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들이다. 2010년 초 설립될 아트테크놀로지 연구소는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비주얼 아트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첨단 공연·전시 예술, 창조적 영감과 창의성 발현과 심리·영성 치유를 위한 영상 콘텐츠, 문화재 복원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할 예정이다.

SIAT 융합연구소의 연구 주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 세계적인 선도 연구, 2) 국제협력 연구, 3) 기술사업화 연계 연구, 4) 사업기간 종료 후 자구적으로 지속 연구 가능성 중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서강대학교는 이러한 연구를 위해 관련 분야 최고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거나 초빙하고 있으며,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 생활비 및 기숙사 지원과 함께 최고의 교수진 아래 첨단 융합기술 연구 및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SIAT은 융합기술과 아트테크놀

로지 분야의 교육, 연구, 사업화가 일원화된 새로운 대학 모델로서 미래 융합기술 연구와 사업화의 국제적 전문가를 양성하고 융합기술 산업을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Global Open Innovation 및 학교 기업 육성

SIAT은 설립 초기부터 개방형 혁신연구(open innovation) 추진 및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 다수의 국내외 대학, 기업 및 경제단체, 연구소 등과 협력하고 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미국), 프라운호퍼(독일), 바이엘-세링사, 지멘스 등 외국 기업, 카네기 멜론, 민한공대 등 세계 우수 대학, 국내 4대 경제단체 및 주요 기업 등 포함 100개 이상의 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제적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강대학교는 이들 기관과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Open Innovation Center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 시 이들 기관의 대부분이 입주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서강대학교는 이러한 개방형 연구협력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연구비 및 기술이전료 수입 확대를 통하여 대학의 재정확충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9년 회계 연도에 연구 수입이 연간 등록금 수입의 50%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앞으로는 학교기업 육성을 통해 대학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강대학교는 2009년 가을 기술지주회사와 1호 벤처기업인 에스메디를 창업하였으며, 2010년에 3~5개의 추가 창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들은 모두 정부가 주최하는 특허대전에서 금상 수여 등

우수기술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기술가치평가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관련 산업 전문가들로부터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은 기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SIAT에서 소개한 서강대학교 창업투자사 역시 서강대만이 갖고 있는 모델로서 설립 2년 만에 운영펀드가 400억을 넘었으며, 대학의 기술사업화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 시도의 일부라도 성공할 경우 서강대학교는 일부 선진국 대학처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학생 장학금, 시설개선 등 교육 및 연구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강대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특별한 서강”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인·창조·융합 교육, 창조적 산학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사학을 넘어 세계의 대학과 어깨를 겨루는 대학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



SOGANG UNIVERSITY

대 / 학 / 연 / 혁

- 1960. 4. 18 서강대학 개교 초대 케네스 길로런 학장 취임
- 1967. 12 대학원 설립인가
- 1970. 3. 종합대학 서강대학교 개교 초대 존 P. 데일리 총장 취임
- 1970. 대학최초의 전문 공연장 메리홀 건축
- 1973. 12. 대학최초의 전면 개가식 로울라 도서관 건축
- 1981. 5.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 방문 및 강연
- 1984. 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문 및 강연
- 1985. 1. 최초의 한국인 총장 서인석 신부 취임(제6대 총장)
- 1990. 4. 개교 30주년 기념으로 알바트로스 탑 건립
- 2008. 9. 곤자가 국제학사 및 지하캠퍼스 건립
- 2009. 6. 제13대 이종욱 총장 취임
- 2010. 4. 18 서강대학교 개교 50주년

